

## 제발 돌아와, 형

이동현 · 서울 대현초등학교 5

**내** 나이 11살이 될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 는 위대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도 발명왕 에디슨도 아니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멋진 왕자는 더욱 아니었다. 그 형. 경남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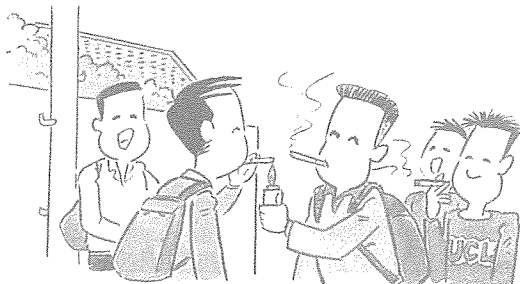
우리 엄마는 수학 선생님 이었고 그 형은 아주 우수한 재자 였었다. 그 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너무 많아 남들이 시샘을 할 정도 였다.

수학 성적 1등, 전국 모의고사 수학 100점,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수학 성적 1등. 키는 훤칠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희어서 검둥이라고 불리는 나로선 여간 부러운 형이 아니었다.

엄마께서는 항상 나에게 그 형의 올바른 가치관과 학업 태도, 장래 희망을 이야기 해주시면서 나의 그릇된 습관들을 고치도록 일러 주셨다. 그래서 그 형은 늘 나의 장래 희망이었고, 그 형이 가장 좋아 하며 따르는 엄마를 나는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다.

1998년 겨울 나의 부푼 가슴에 희망의 싹들이 모두 얼어죽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너무나 처절한 배반이었고, 그 형의 모습에 혐오감마저 느낀 사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다.

수영장에 갔다가 추워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형들 여러 명이 담배를 피워 대며 한 형을 짓밟고 있었다. 짓밟히는 형 입에는 담배 두 개를 집어넣은 채.

너무도 끔찍스러워 도망치듯 달려가는데 어둑어둑한 날씨에 귀에 익은 목소리와 그 모습이 담배 연기와 함께 나타났다.

바로 그 형. 귀에는 귀고리가 반짝이고 바지는 두 명이 들어가도 남을 합합 바지,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라는 무기를 든. 한마디로 미국 갱 영화를 보는 듯 했다.

“형~. 이렇게 나를 처절하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형을 좋아했는데, 이 모습을 우리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렇지 않아도 소식이 없다고 궁금해 하셨는데…”

재빨리 뛰어가서 인터폰으로 엄마를 불러냈고 그 형은 강제로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왔다. 환한 불빛에 비친 그 형의 얼굴은 너무나 많은 흡연으로 얼굴이 너무나 까매져 있었고, 잦은 기침을 하며 살이 많이 빠져 수척한 모습이었다.

내가 저 형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말인가! 대통령보다도 장군보다도 더욱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형은 너무나 초라하게 담배 한 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있었다. 그 간의 사정을 울면서 털어놓았다.

IMF. 너무나 처절한 단 어라고, 아빠 사업이 망하고, 엄마는 사채로 빌려준 돈을 다 떼이고, 알지 못했던 그 두분 사이의 비밀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엄마는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아빠는 부산에서 거처도 알 수 없이 도망을 다니신다고….

형제도 하나 없는 형.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회가 책임져야 할 형의 미래, 엄마도 눈물을 흘리시며 그 형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셨다. 백 마디의 충고보다도 더 깊은 엄마의 가르침이 전달 됐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 냈다.

첫째는 하루에 두 갑 피우는 담배를 절대 끊을 것. 이 담배는 모두 맑은 정신을 흐리고 나쁜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둘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멋진 대학생이 되자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엄마를 부모처럼 의지할 것.

형이 돌아가는 모습은 비록 어깨는 처져 있어도 마음속에서 사라지려던 높은 꿈은 다시 용광로처럼 치솟을 거라고 기대했다. 나도 결심

을 했다.

중·고등학생 형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절대로 흉내 내지도 말

것이며 호기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담배는 저렇게 모범적인 형도 무너뜨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진 것

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인 밤이었다. ㉘

1999년도 전국 초등학교대상 금연글짓기 은상(銀賞) 작품

# 나의 할아버지

이성현 · 부산 전포초등학교 5

**“저**런, 사내 녀석이 그만한 일로 옮긴.”

동생과 한바탕 뒤엉켜 싸우고 나면, 어른들의 핀잔은 언제나 내 뒀으로 돌아와, 그렇잖아도 볼만 가득한 나를 끝내 눈물 흘리게 합니다.

‘씨이!, 할아버진 나만 미워해.’

밥알을 흘릴 때도, 거실을 조금만 뛰어도 할아버지께서, ‘사내 녀석아’, ‘사내 녀석아’ 하시면서 나를 꾸중하십니다.

하루 종일 나만 쳐다보며, ‘저 녀석 혼날 일이 없을까?’ 궁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정말 싫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끔찍히 야기고 사랑하시는 건 ‘담배’ 뿐인 것 같습니다. 거실 가득한 난이며, 수석에 물을 뿌리실 때도 서재에서 책을 보실 때도, 할아버지의 손가락 사이엔 하루 온종일 담배가 끼워져 있으니깐요.

그런 할아버지께 하시는 할머니의 성화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고모들이 기관지가 나빠, 목 감기를 자주 앓는 것은 ‘담배 연기 가득한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한 할아버지의 탓이라는….

그러나 할아버지는,

“어허, 또 잔소리.” 하시면 그만입니다.

새벽녘의 거친 가침 소리를 빼면,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건강하십니다. 내겐 멋없고, 무섭기만 한 할아버지를 남들은 ‘존경한다’ 고 했습니다. 관세사이신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힘으로 학비를 벌며 그 어려운 공부를 마치셨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

러지셨습니다.

‘폐암 3기!’

그것은 암세포가 뺏속까지 퍼져 수술조차 필요없었던, 할아버지를 내게서 빼앗아간 지독한 병의 이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져 누우신 여러 날 뒤, 허겁지겁 달려오신 엄마는 차안에서 울먹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널 찾으신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잠든 할아버지는, 의식 저편 너머로 담배를 피우시는지 이불 끝자락을 돌돌 말아 가끔씩 입으로 가져가십니다. 아직도 할아버지는 온통 담배 생각뿐인 듯 합니다.

더 이상 혈관을 찾을 수 없어 가슴을 뚫어 꽃었다는 대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물핀’ 이라는 진통제를 맞으며, 이품을 차마 내는 할아버지의 온몸은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엄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작아져 불품없는 앙상한 손으로 힘들게 나를 잡으시며,

“성현아,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

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작은 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죽음’이란 무서운 단어가 던져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아니, 담배가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몸부림치며 우시던 아빠의 슬픔과 엄마의 눈물 앞에 소용없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4월 5일입니다.

뿌연 새벽이 우리를 따라 달려옵니다. 차창 밖으로 활짝 핀 벚꽃도 우리를 따라 나섭니다. 멀리서 피어 오르는 굴뚝의 연기가 정겹습니다. 어느새 동생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호된 꾸지람이 그림기까지 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저 만치서 새들이 반깁니다. 산소 위의 무성한 잡풀들도 어서 오라 손짓합니다. 나는 준비해 간 걸레로 산소의 돌레석과 방주석을 닦아 냅니다.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땀이 온몸을 타고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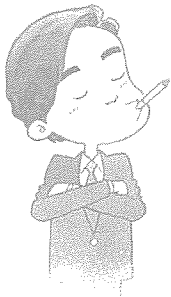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

니다. 백여 가지의 발암 물질을 갖고 있다는 ‘담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심각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자각하게 하여 그것의 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찮은 ‘담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처럼 환갑도 못 지내고 죽음을 맞는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불끈 준 주먹 사이로 힘이 넘칩니다. 생전 처음 본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구름 너머로 보입니다. [7]

## 혹시 내가 담배 중독? WHO 자가 진단 질문 10항 제시



나는 담배 중독일까, 아닐까.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10개 질문 가운데 5개 이상에 '예' 라고 대답하면 담배 중독이다.

1. 담배를 배울 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피운다.
2. 끊거나 줄이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3. 끊거나 줄이려고 했을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한 적이 있다.
4. 끊거나 줄이려고 하면 초조·신경질·우울·정신 산만·두통·무기력·수전증·식욕 증진·기침·맥박 저하·불면·메스꺼움·구강 통

증 등의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일어난다.

5. 4번의 증상을 없애기 위해 다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6. 병에 걸려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피운 적이 있다.
7. 담배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숨이 차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8. 담배 때문에 초조·신경질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9.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10. 흡연자가 하기 힘든 일이나 비흡연자와 만나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